

월요논단



김 성 은
제주도국제관계대사·전 뭉바이 총영사

2년여간 고향에 체류하면서 여러 연구소 및 기관과 함께 현장도 많이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과 제주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도 하고 토론의 기회도 가졌다. 이와 관련해 내가 평소 생각하던 것들 중 몇 가지를 도민들에게 제안코자 한다.

첫째는, 개발 인식전체의 조속한 도입이다. 제주도는 반세기 이상 오로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실수도 범했고, 놓친 것들도 많다. 그 결과, 제주도는 지금 쓰레기, 난개발, 수질오염 등 물 문제, 바다 오염,

제주도를 위한 제언

도시 미관문제, 복잡한 통신선과 전선, 주차난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는 개발 일변도에서 탈피해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해 기본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할 시간을 가져야 할 때다. 최소한 10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당분간 개발을 멈추자는 것이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섬(WFI) 추진이다. 지금 제주도는 탄소없는 섬(CFI)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도 필요하다. 하지만 청정 제주를 위한 WFI 추진이야말로 더 시급하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름 없는 산들이 생기고 있다. 다음 아닌 쓰레기 더미다. 한라산 으슥한 곳곳에 쓰레기들이 모르게 투척돼 쌓여 있다.

WFI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우선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또 업사이클링해

야 한다. 소각하고 남은 찌꺼기는 자원으로 만들어 상품화한다면 쓰레기 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최신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쓰레기 정책도 현실에 맞게끔 재조정돼야 한다. 특히, 너무 낮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금은 대폭 상향조정돼야 한다.

셋째는, 환경은 자산이다. 환경과 떠나 훼손은 자산손실이다. 오름과 밭담, 꽃자왈,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소와 말들이 한가히 목장에서 거닐고 있는 이런 풍경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치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것들이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권리, 즉 환경권은 법적으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 후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제2공항과 같이 한번 환경을 파헤치면 회복 불가능한 사업의 추진에는 그야말로 신중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 세대가 결정

하느니 오히려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지금 세대는 환경보전자금과 관광객 총량제 도입, 현 공항시설 개선 및 확충 등을 통해 과잉관광 문제만 해결하면 족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참고로, 발리, 베네치아, 마추픽추, 네덜란드 등 외국의 과잉관광 대처 사례도 살펴보면 좋다. 미래에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할 것이라 한다. 향후 이처럼 관광 수요가 불안정할텐데 굳이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과 토목간의 위상도 재설정돼야 한다. 토목학에서 토목공학으로, 또 최근에는 토목환경공학으로까지 발전했는데, 제주도에서 만큼은 환경토목공학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도내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있어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마당

바이러스와의 공존, 단엽산생



송 상 현
제주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팀장

바이러스는 세균보다도 작은 미생물의 한가지로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이뤄진 생물이다. 스스로 물질대사를 하지 못해 독립적인 생존이 어려워 인간이나 동물, 식물 등의 살아있는 생물체에 100% 의존해서 살아간다.

우리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대표적인 바이러스로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흑사병, 말라리아 등이 잘 알려져 있으며, 스페인이 남아메리카의 잉카제국을 멸망시켰던 것 또한 천연두바이러스였다.

동물에게도 구제역바이러스, 조류독감바이러스(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의 감염으로 많은 가축들

이 매몰되고 방역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익숙하다.

식물 또한 바이러스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토마토반점 위조바이러스, 벼줄무늬얼마름병, 담배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의 전염으로 인해 농작물을 뽑아서 불태우거나 매몰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들을 방제하는 일들을 많이 봤다.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단계가 남아 있어, 대안으로 바이러스의 숙주인 생물체를 없애거나 숙주의 이동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몽치면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요즘은 '흠어져야 살고 몽치면 감염된다'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인류는 바이러스와의 공존단계에서 언제나 우위를 지키고 있으니, 조만간 바이러스 확산이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홍보 총력

“누락없이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일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 신고 접수(6월30일까지)가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가 홍보에 총력.

도는 추가신고 안내문자 발송, 언론사 지면·인터넷 배너 광고, 읍면동 현수막 게시 등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홍보에 박차.

도 관계자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상 생활 속 복지 혜택도 꾸준히 발굴해 평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점언. 오은지기자

인사철에도 식당가엔 찬바람

○…공직사회의 인사철마다 회식 등으로 북적였던 행정관청 일대 식당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지난 13일 인사예고 후에도 찬바람만 불면서 언제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속앓이. 현영종기자

5인 이상 집합금지 상황에서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분청과 행정시 등에 공문을 보내 회식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거듭 강조.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간단한 음료·다과로 승진자를 축하하고 부서 이동 직원들끼리 인사를 나눴다”고 전언. 문미숙기자

주민불편 해소 사업 조기발주

○…남원읍이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숙원사업을 연초에 조기 발주하는 등 빠른 행보.

남원읍은 지난 1월 초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변 수목제거·도로보수 등 생활 밀착형 시설물 관리 공사에 착수한데 이어 1월 중으로 중산간지역 보행환경 개선 등 사업을 순차 추진한다는 계획. 현종시 읍장은 “주민숙원사업 조기 발주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 현영종기자

사설

항·포구 추락사고, 안전대책 왜 없나

매년 도내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항·포구가 섬의 특성상 도내 곳곳에 산재한데다 어업인 외에 여가를 즐기려는 유동인구도 많은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추락사고 빈발 소식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행정은 절실한 항·포구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관' 상태여서 빈축을 사기에 충분하다.

도내 차량 연안사고는 2018년 1건(1명 사망), 2019년 4건(1명 사망), 2020년 2건 등으로 매년 이어졌다. 운전자에 의해 바다로 차량이 돌진한 경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 항·포구 안전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해재에도 연이은 2건의 추락사고로 총격이다. 지난 13일 서귀포항 6부두 인근에서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가 바다로 추락, 40대 운전자가 스스로 탈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에는 도두항 북방파제 인근에서 20대가 SUV를 몰다 바다

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차량 추락사고는 운전미숙이나 사이드 브레이크 미설정 등의 운전자 부주의도 있지만 대부분 안전시설물 설치 미흡을 주원인으로 꼽는다. 현재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방지용 안전장치는 고작 높이가 약 10~20cm, 길이 1m 내외의 차량 추락 방지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고 빈발 사례에 맞춰 위험 표지판이나 안전펜스, 출입통제 등의 추가 안전대책들을 찾아볼 수 없다. 항·포구를 주로 이용하는 어업인들이나 수상레저 동호인들 입장에 고려해야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행정당국은 차량 추락사고로 인한 소중한 인명피해를 방관만 해선 안된다. 사회 제 분야가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는 마당에 빈발하는 항·포구 차량 추락사고 안전대책을 외면 말고 조기에 세워야 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투자기업 옥죄는데 누가 투자하겠는가

원희룡 제주도정의 투자유치 실적은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말만 투자유치지 도무지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예 투자유치에 손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제주에 대한 투자유치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이전·신설 투자유치 실적(MOU 체결)은 2017년 6건, 2018년 3건, 2019년 1곳, 2020년 3곳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등 어려운 투자여건 속에서 3곳과 투자협약이 이뤄졌다. 전례없는 상황에서 거둔 실적이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4년동안 수도권 등 국내기업 13곳과 이전·신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류하거나 포기한데다 부지 확보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이 말만 투자유치지 도무지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연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아예 투자유치에 손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수도권 등 국내기업의 제주에 대한 투자유치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

심히 걱정스럽다. 국내기업 투자유치만 형편없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도 마찬가지다. 국내 투자유치가 시원치 않은데 외국인 투자유치가 좋을 리 만무하다. 실제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신고 건수는 66건, 신고 금액은 3억6300만 달러다. 2019년 85건 4억1700만 달러에 비해 각각 22.4%, 12.9% 감소했다. 문제는 앞으로 제주에 대한 투자유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는 데 있다. '충약선언'이니 뭐니 하면서 갖가지 방법으로 투자기업을 옥죄는데 어느 기업이 제주에 투자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당 회사는 2021년 01월 18일 총주주의 동의를 의한 서면 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800,000,000원을 금 450,000,000원으로 감소하고 그 방법으로 현재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의 비율로 균일하게 감소하여 발행주식총수 80,000주를 4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함. 또한 구주권을 가진 주주는 이 공고의 게재 익일부터 1월 이내에 구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8일

정민건설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중길 18, 1층 (연동)
대표이사 안관진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과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설(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용강동 가족모지용 매매

묘지허가 가능

연락처 010-6360-9167 010-7666-231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